

#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 I. 서론-재미는 있지만 마음은 불편한 오리지널 OTT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돈으로 만들어 자신의 플랫폼 전용으로 활용하는 드라마들을 ‘넷플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 Series)’이라고 한다. 다른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을 사 오거나 빌려 와서 일정 기간 가입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품에 투자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리즈용으로 제작된 드라마라 할지라도 편당 제작비가 한국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작비를 투자받는 것 외에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투자를 하거나 저작권이 아닌 상영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식의 불공정한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 시청률 세계 1를 하고 넷플릭스를 먹여살렸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작 감독과 제작자들은 처음에 계약한 제작비 외에는 받은 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제작하는 제작사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OTT서비스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까닭에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극장상영과는 달리 표현의 대상과 수위가 다른 데서 오는 불만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대상에서 기독교는 단골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넷플릭스와 같은 OTT서비스를 목적으로 제작한 드라마들 가운데는 일반 극장용이라면 쉽게 생각하지 않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장면들이 꾸준히 제공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표1>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방영한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 관련 한국 드라마

번호	드라마 제목	방영 시작일	주요 흥행 기록
1	오징어 게임	2021.09	넷플릭스 서비스 190여개국 모든 국가에서 1위. 에미상 6관왕.
2	지옥	2021.11	IMDB평점 6.6, 2만4천명 이상 리뷰
3	지금 우리 학교는	2022.01	2주간 전세계 넷플릭스 TV시리즈 1위
4	수리남	2022.09	한국1위, 첫공개후 세계26위
5	더 글로리	2022.12	넷플릭스 아시아권 1위

이것은 감독의 세계관에 따른 결과일까 아니면 사회현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일까? 감독이나 작가에게 직접 이유를 들 수 는 없지만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결과들은 마찬가지다. 기독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며 최소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것은 OTT가 주도하는 디지털 영상문화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에 속제를 남겨주고 있다.

## II. 현상-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부정적 기독교인의 세 가지 특징

영화 <도가니>(2011)와 <수상한 그녀>(2014) 그리고 <남한산성>(2017) 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서 공개한 9부작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 2021)은 부조리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황동혁 감독은 사회문제를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한편, 영화는 영화대로 흥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다.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 성폭력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부여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가니>이 실제 사건이 일어난 광주인화학교(2012년 폐교)가 미션스쿨로 등장하고 성폭력 기해자인 교장은 기독교인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뚜렷이 부각되기도 했다.

전 세계 1억1천백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했다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성공 요인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한국 놀이문화가 주는 신선함에서 오는 재미도 있지만,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한국적인 문화이지만 게임 참가자들의 모습에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의 성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황동혁 감독은 <도가니>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했다. <오징어 게임>을 보는 기독교인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드라마에는 세 명의 기독교인 캐릭터가 언급되거나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 캐릭터는 세 가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반사회적인 인물이며, 둘째는 비상식적인 캐릭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른 채 믿음 만을 앞세우는 전도자의 모습이다.

## II-1. 반사회적인 캐릭터로서의 기독교인

<오징어 게임>의 244번 지영(이유미)은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현장에서 살해한 후 교도소 복역을 끝내자마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경우다. 그녀의 입에서 언급된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성폭력을 일삼는 짐승과 다름없었다.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했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드라마에서 인식되는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이미지는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오징어 게임>에 나타는 반사회적인 인물로서의 기독교인은 단지 출연자의 대사를 통해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리남>에서는 비록 목사 신분으로 위장한 사기꾼으로 등장하지만 배경(교회)과 행동(예배), 신분(목회자), 의상(성직자 의상, 십자가 목걸이)과 언어(교회언어) 등에서 교회 성직자의 완벽한 이미지를 갖추었다.

## II-2. 신앙과 행동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비상식적인 캐릭터

<오징어 게임>속 224번 남성은 ‘기도하는 XX’로 불리운 사람이다. 유리 징검다리를 건널 때 뜬금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며 주저앉는 바람에 뒷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쳐서 떨어져 죽게 만들기도 한다. 그 역시 타인에 의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호명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린 어차피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와 같은 그의 언행에서 시청자들은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 비상식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김은숙 작가에다 송혜교 배우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주인공의 계획적인 복수를 그리고 있다. 여기서 악당역 가운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회자의 딸이다. 드라마의 가장 핵심 빌런(악당)의 절친 이사라(김히어라)는 부정적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다. 아버지가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까닭에 기도하고 성가대 활동을 하는 등의 신앙적 면모가 등장하지만,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며 약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눈곱만치도 갖고 있지 않다. 부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가져다 모아 놓은 종합세트 같은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역시 이사라의 어머니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상류사회에서 누리는 고상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뿐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딸에게 가르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 II-3. 이웃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른 채 믿음만을 앞세우는 이미지

드라마에 등장한 세 번째 기독교인은 주인공 기훈이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졌을 때 처음 만나는 인물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쓰여진 십자가를 든

거리의 전도자가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기혼을 보고 입을 연 첫 마디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였다.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제공되는 순간이었다.

### III. 사회적 분석

#### III-1. 세속화된 사회의 문화현상으로서 종교인에 대한 묘사

<지옥>이나 <신과 함께>와 같은 종교적 이미지와 은유가 살아있는 영화들을 즐겨보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종교인 혹은 무신론자들이 다수인 사회란 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비율이 1984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었음을 알 수 있다.

<표2>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2021년 조사(%)

조사년도/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 없음
1984	19	17	6	56
1989	21	19	7	51
1997	18	20	7	53
2004	24	21	7	47
2014	22	21	7	50
2021	16	17	6	60

\*그 외의 다른 종교: 1984년 3%, 1989년 2%, 1997·2004년 1%, 그 이후는 1% 미만.

한국갤럽은 무종교인 비율이 증가한 결정적 원인을 청년들의 종교인구가 감소한 데서 찾아냈다. 2004년 조사를 할 당시 20대 종교인구는 45%였는데, 2014년에는 31%, 2021년에는 22%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속적 문화에 세례를 받고 자란 청년들은 뜻밖에도 판타지에 익숙하다.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의 이미지와 스토리는 신화나 종교적 성격을 가진 판타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청년 세대는 판타지 게임에 매일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교회와 예배에 관심 없는 현대인들이 지옥, 영혼, 심판, 부활과 같은 초월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본다는 사실은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첫째 그들은 무종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써 영화의 종교적 메타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다만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원초적 액션과 새로운 이미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종교성 혹은 영적인 욕구를 교회가 아닌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만족을 얻으려는 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낳았다고 보는 해석이다.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기계로 둘러싸인 물질세계에 만족하며 살 수 없는, 뭔가 허전함과 허망함이 마음에 솟구치는 것을 느낄 때 종교적 판타지 영화들은 잠시 마음에 위안을 제공해줄 수 있는 까닭이다. 이것은 자석의 원리처럼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초월적이며 영적인 대상에 마음이 끌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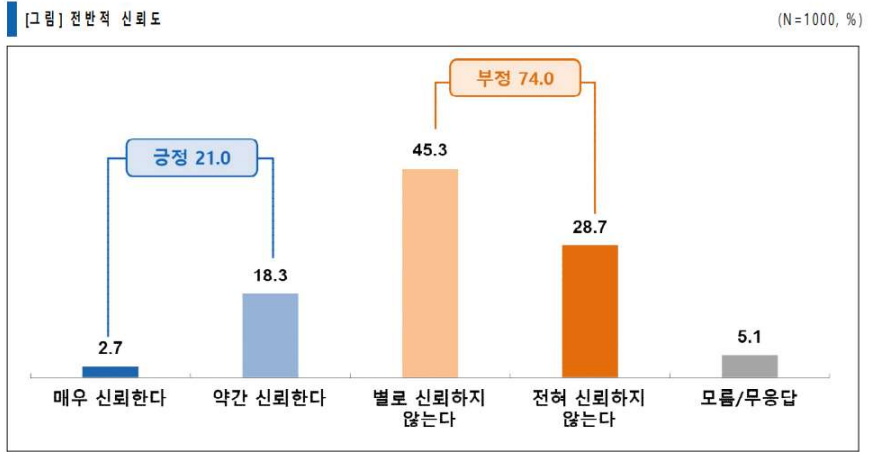
어찌 됐든 종교인과 종교행위에 대한 묘사로서 세속적인 영화들은 신앙의 정통성이나 목회자의 목회자 다운 행위 혹은 교리에 합당한 행동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시청자들에게 묘사의 대상이 기독교인이란 것만을 인식시켜주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 III-2. 현실사회에 나타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화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비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접 묘사하는 평면거울은 아닐지라도 영화를 통해 우리는 사회의 모습을 분간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새로운 모습을 영화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은 영화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생각을 알게 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더라도 극중 표현된 이미지들을 통해 관객이나 시청자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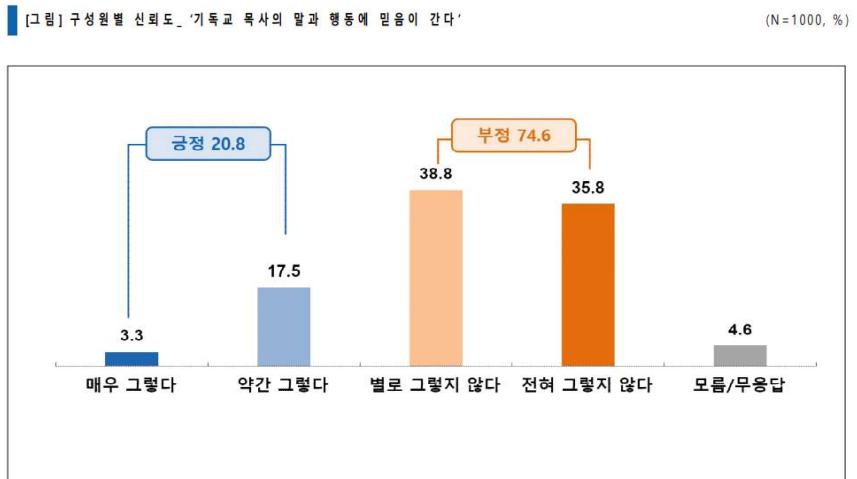
2023년 2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최근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단순한 상상력의 결과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이유있는 묘사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로 3년 전에 비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는데, 불신한다는 응답은 기운실이 2008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시행해 온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표3>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목회자를 향한 신뢰도 역시 낮게 조사됐다.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고, 절반을 훌쩍 넘는 74.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표4>한국 목회자 신뢰도 조사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온 국민이 방역에 힘을 쏟을 때 종교의 자유, 즉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권리를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조하거나 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일들은 비록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기도 했다.

정재영 교수는 이러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언급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보기 쉽다.<sup>24)</sup>

### III. 부정적 이미지가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결과-집단 정형화의 효과

영화 속 기독교인의 부정적 묘사가 관객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그 효과를 예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흑인이나 아랍인 혹은 동성애자 등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반복됨으로써 정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된바 있다. 비록 TV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전세계인들이 반복해서 즐겨볼 수 있는 OTT 방식으로 유통되는 넷플릭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흑인들의 이미지만 강도나 절도범, 알콜이나 마약중독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흑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집단 정형화 효과의 예라 할 수 있다. 영화 <다이하드3>(1995)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수수께끼 놀음에 맥클레인(브루스 윌리스)과 동병상련의 처지가 된 흑인 해수스(사무엘 잭슨)가 ‘흑인이라면 다 핀 하나로 잠물쇠를 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백인들이 가진 편견’이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것 역시 집단 정형화 효과를 영화 스스로 말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넷플릭스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과연 집단 정형화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세드릭 클라크(Cedric Clark)가 소수집단을 묘사하는 미디어의 방식에 대한 변화과정 이론은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묘사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sup>25)</sup>

세드릭 클라크는 1969년 텔레비전이 소수 집단을 묘사하는 방식이 4가지 단계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처음은 ‘부인(否認, nonrecognition)’의 단계다. 소수집단이 미디어로부터 아예 배제되는 단계를 말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 소수집단을 경험하지

24) 정재영(2023),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5) 리차드 해리스저, 이창근 김광수역(1991), 『매스미디어 심리학』, 나남신서 199, 나남, 68-69쪽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조소(嘲笑, ridicule)’의 단계가 있다.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특정 소수집단은 무능하고 비지성적인 광대의 위치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우월적 위치를 마음껏 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조정(調整, regulation)’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소수집단은 현존하는 질서의 옹호자로 나타난다. 정부관료나 형사를 맡기도 하며, 주인공 주변에 머무르며 주인공의 성공적 결말을 돕는 역할로 나서기도 한다. 즉 긍정적 이미지가 발산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존중(尊重, respect)’의 단계다. 좋은 역이건 나쁜 역이건 가릴 것 없이 지배 집단이 해왔던 역할을 똑같이 맡게 된다. 흑인들은 더 이상 악당으로만 등장하지 않고 교사나 형사, 심지어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다. 덴젤 워싱턴이나 모건 프리먼과 같은 배우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여전히 무명의 흑인 배우들은 나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정형화된 이미지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란 것이다. 등장인물의 유형이 다양해졌을 뿐이지 정형화된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소수집단이 모두 호의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바라 본 기독교인인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개신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7%에 달할 만큼 숫자상으로는 소수집단을 넘어섰지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비율은 높지 않으며, 노출되는 이미지 또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경우를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거기다 타종교의 반발을 우려해야 하고 기독교에 대해 옹호하는 영화라면 타종교인 혹은 비종교인의 관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 깊이 뿌리박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문화적으로 소수집단의 위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 TV나 영화를 통해 노출되는 회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줄어든 것과도 관계를 엿볼 수 있다.

#### IV. 대안을 모색하다

##### IV-1. 기독교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대안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image)는 대상 자신이 본질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략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뜻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벧전2:9)’이라는 성경에서 규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가 성경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때 큰 힘이 되는 메시지임이 분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얻은 것이 아닌 일상에서 경험되어진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 언뜻 나타나는 겉모습이나 의도된 연출의 결과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에 대해 갖는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기존의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과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오징어 게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쓰는 일이다.

둘째는 세상 이웃과의 친절한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교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한다면 분명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2차 세계대전 말엽에 사비나 웹브란트는 음식과 친절한 인사를 통해 닫혀있던 이웃의 마음을 열었다. 친절한 말투와 미소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보다 훨씬 쉽다.<sup>26)</sup>

셋째는 교회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훈련된 기독교 대중예술가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일이다. 이 모두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앙과 세상을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이 우리에게서 시급히 필요하다.

#### IV-2. 드라마 <파친코>의 예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는 기독교인의 의미있는 행동을 통한 인생 구원의 역사가 펼친 일을 보여주고 있다. 선자(김민하)는 일본 권력을 등에 지고 장사를 하는 한수(이민호)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부자인 데다 세련되고 잘생긴 한수가 일본에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뱃속에 아이를 가진 뒤였다. 돈으로 아이와 선자의 마음을 사려는 한수와 이별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아비 없는 자식을 키워야 하는 여성의 신세란 멸시와 비난의 시선만이 기다릴 게 뻐한 현실이었다.

이때 선자 어머니가 운영하던 영도 하숙집에서 마침 병구완을 받고 회복한 이삭(노상현)은

26) 영화 <사비나: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시대>(Sabina: Tortured for Christ, the Nazi Years , 2021)에 나오는 장면이다.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 14년간이나 옥살이를 했던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와 그의 아내 사비나 웹브란트는 사랑과 용서의 캐릭터를 보여주었다.

선자의 당찬 성격과 용기에 반하고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며 임신한 선자와 결혼하게 된다. 이삭은 평양의 부잣집 둘째 도련님으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로서 일본의 동포교회에 청빙을 받고 가는 길이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교회에서 선자와 이삭의 결혼식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며 성경적이다. 목사님은 선자를 향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잊지 않는다. 드라마 속 기도는 형식만을 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 영화가 아닌 일반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길고 진실한 기도가 아닐 수 없다.

교회의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은 마치 성령님의 축복과도 같은 느낌으로 기독교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회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머니의 손을 꼭 쥐 선자의 표정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회한과 이제는 살았다는 감사의 눈망울이 영롱하다.

소설에서 이삭 목사는 일본 교회에서 사역 중 중국인 성도가 천황숭배 대신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죄목으로 2년간 투옥되고 가뜩이나 병약한 몸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투옥당하고 고문 끝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역시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제 치하의 기독교 신앙을 의미있게 다루고 있다.

<파친코>의 원작자인 이민진 작가는 하버드 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자신이 기독교 신앙인이고 원작에는 성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라는 사실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평양 백부자의 모델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드라마에 언급된 평양 백부자에게는 독립운동하다 죽은 큰아들 사무엘과 둘째 요셉(한준우) 그리고 셋째 이삭이 있다. 이름을 짓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와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암시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인의 높은 위상을 드라마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